

‘쓰레기 마당’ 된 문화전당 하늘마당

행락철 맞아 방문객 급증 먹고 마신 쓰레기 그대로 하루 100ℓ 봉투 15~20개 주말엔 두배로 늘어 산책 나온 시민들 불쾌감

나들이하기 좋은 5월 들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도심 속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크게 늘면서 아시아문화전당의 대표 공원인 ‘하늘 마당’이 넘쳐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3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위치한 공원 하늘 마당은 주말을 맞아 쉴 곳을 찾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약 2000평 크기의 하늘 마당에는 1000여명의 시민들이 돛자리를 깔고 삼삼오오 둘러앉아 휴일을 즐겼다.

하지만, 시민들이 자리를 떠나고 남은 것은 먹다 남은 음식과 치킨박스, 도시락, 맥주캔 등이었다. 공원 주변에는 배달 음식 찌꺼기와 빈 병, 과자봉지가 나뒹굴었고 잔디밭도 치킨 포장 박스 등 각종 쓰레기로 난장판이 됐다.

이 날 가족과 산책을 하러 나온 시민 김모(27)씨는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하러 나왔는데 술, 치킨, 피자 등 각종 음식물 냄새 때문에 불쾌하다”며 “여기저기 발 밑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도 문제다”고 말했다.

아시아문화전당 미화팀에 따르면 이날 하루동안 100ℓ 들어 쓰레기 봉투 20여개가 배출됐다. 한 관계자는 “사람들이 몰려



지난 13일 오후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하늘 마당’에 주말을 맞아 피크닉을 나온 젊은이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오른쪽은 휴일이 끝나고 배출된 쓰레기 더미. /전은재기자 ej6621@



와 먹고 남은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가기 일쑤다. 심지어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아무데나 휘휘 던지고 가기도 한다”며 “밤새 술판이 벌어지고 나면 하늘 마당 주변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분리수거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이 밤새 먹고 놀다 버리고 간 쓰레기를 다음 날 오전 내내 치운다”며 “자기가 먹고 나온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평일(월, 화, 수 목요일)에는 하루 최대 100ℓ 들어 쓰레기 봉투 15~20개가 배출되는 반면 주말(금, 토, 일요일)만 되면 쓰레기 양은 2배로 늘어난다. 심지어 황금연휴였던 지난 5일에는 황금연휴를 맞아 평소와 비해 2~3배 늘어난 이용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다. 5일 하루에만 배출된 쓰레기 양은 100ℓ 들어 쓰레기 봉투 80여 개에 달한

것이다. 문화전당 시설관리과 주무관 정지현씨는 “주말마다 공원 주변에 쌓이는 쓰레기에 관한 대책을 논의 중이다. 공원 내에 쓰레기 투기 금지 표지판을 세워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주말마다 벌어지는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은재기자 ej6621@

세월호 3층 객실 ‘사람 뼈’ 18점 발견

선체조사위 특별법 통과 뒤 첫 회의

일반인들이 머물렀던 세월호 3층 객실에서 ‘사람 뼈’로 보이는 유골 다수가 이를 연속 수습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 선체 수색 중 3층 객실 중앙부 우현 측(3~6 구역)에서 오전 9시40분~11시30분께 뼈 7점, 오후 2시~5시께 뼈 11점 등 총 18점을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곳은 전날에도 뼈 3점이 수습된 곳이다.

현장수습본부는 “신원확인팀의 국과수 및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전문가의 육안 감식 결과, 사람 뼈로 추정된다”며 “국과수 본원에 정밀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전자(DNA) 분석에는 1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골이 발견된 곳은 일반인들이 머물렀던 곳이며, 지난달 28일 미수습자인 권재근씨 부인(2014년 4월 수습)의 가방이

발견됐다. 일반인 미수습자는 권재근씨와 아들 혁규군, 이영숙씨 등 3명이다. 한편,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4차 전체회의가 15일 오전 11시 목포신항에서 열렸다.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선체조사위는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 5명, 희생자가족 대표가 선출한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 8명이 모두 참석했다.

특별법 시행령 통과 뒤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활동 방향과 선체 조사방법, 세월호 침몰현장에서 활동할 민간연락관 위촉, 4·16연대가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공개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영기자 young@

“광주 예술중 2021년 이후 설립 검토”

교육청 간담회...옛 전남교육청 부지에 예술고 이전

광주에 예술중학교가 신설될 전망이다. 또 예술고 이설을 위한 부지 매입 절차도 본격 진행된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이날 열린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광주시 북구 매곡동 옛 전남교육청 부지(면적 3만6938㎡)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보증금 34억6000만원을 포함한 ‘2017년 제 1회 광주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옛 전남교육청 부지에 830억을 들여 예술고(5개학과 15개학급 규모)를 옮겨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청은 또 “오는 31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광주시교육감은 부지 매입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을 감안,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제 258회 임시회’에 처리해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특히 교육청은 지난달 ‘예술’ 중·고 통합 등 종합운영계획 수립’ 등 조건을 충족시킨 뒤 추진하라는 교육부 ‘정기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결과를 반영, 오는 2021년 이후 예술중학교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시의회에 밝혔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조건부 추진’ 통보는 특정 조건을 충족시킨 뒤 추진하라는 의미라는 게 시의회 설명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현 예술고 부지(1만 4002㎡) 매각 대금(추정금액 140억원)과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500억), 올 해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정산액(190억) 등을 이설 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8 달뜨기 23:48
해질 19:30 달지기 09:31

봄바람 솔솔~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12/24	보성	10/24
목포	13/21	순천	12/24
여수	14/23	영광	10/22
나주	10/24	진도	11/23
완도	13/23	전주	11/23
구례	10/23	군산	11/21
강진	11/24	남원	9/23
해남	10/23	홍산도	13/20
장성	9/23		



◇바다 날씨

지역	해상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서~북서	0.5	서~북서	0.5
남해	남부	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남해	서부	서~북서	0.5	서~북서	0.5
남해	서부	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남해	서부	서~북서	1.0~1.5	서~북서	1.0~1.5

◇생활지수

관심	☀️
식중독	🦠
높음	☀️
자외선	☀️
보통	☀️
피부질환	☀️

◇주간 날씨

날짜	17(수)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날씨	☀️	☀️	☀️	☀️	☀️	☀️	☀️
날짜	11/23	14/29	15/29	15/29	15/29	15/29	15/29

소록도 오늘 한센인 축제 한마당

기념식 전국 5천여명 참석...18일까지 체육대회 등

국립소록도병원은 개원 101주년과 제 14회 한센인의 날(5월 17일)을 맞아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소록도에서 한센인 화합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행복한 동행, 함께 만드는 내일”을 주제로 열리는 16일 공식 기념식에는 전국 5000여명이 참석한다. 기념식 이후에는 한센인 가족의 화합을 다지는 체육대회와 노래자랑 등 축제 한마당 행사가 진행된다.

소록도 한센병박물관은 소록도의 역사를 보여주는 ‘Before 소록도’ 기획전을 연다. 소록도가 청동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지역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소록도 출토 청동기 유물 8점과 신증동국

여지승람, 목장지도 등 고서와 지도가 전시된다. 소록도 한센인으로 구성된 예술동호회인 해국예술회의 미술 작품을 볼 수 있는 특별전도 함께 열린다. 18일에는 한국, 중국, 대만 등 국의 한센병 관계기관과 연구자, 한센인이 참가하는 ‘국제한센포럼’이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각국의 한센병 관리 실태를 공유하고 한센병과 관련된 인권·의료 문제 극복을 위한 국제연대 방안을 논의한다. 소록도병원은 한센병 환자를 전문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지난 1916년 설립됐다. 한때 수용환자가 6000명을 넘었지만, 현재는 500여명의 한센인이 마을과 병원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서구도 ‘평화의 소녀상’...8월15일 제막식

광주 서구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추진된다.

광주 서구는 오는 18일 오후 4시 상무시민공원에서 관내 시민단체와 함께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서구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소녀상은 상무시민공원 안중근 의사 동상 주변에 건립 예정이며 제막식은 광

복 72주년을 맞아 8월 15일 열기로 했다. 서구 평화의 소녀상 크기와 형태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맞은편에 들어선 소녀상처럼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는 광주지역 미술인 3~4명을 물망에 올려 놓고 작가 섭외를 진행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보장
무료 청력테스트 상담점검
서울 **본사서비스**와 동일 서비스 제공

오티콘 보청기 **홈케어 서비스**
전라도, 경상도 지역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고객중심 무료 맞춤형 서비스

농성역 또는화정역 100m가량 직진 후,1층 102호로 오시면 됩니다.
광주지사 직영점 062-364-8800

oticon
PEOPLE FIRST

24/35평 분양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 온세계 아이조움

분양 전환 계약금 500만원

대출 70% OK! | 이자만 납부 OK! | 청약 통장 NO! | 즉시 입주 OK!

24평형: 방 3, 화장실 2, 주방, 거실
35평형: 방 3, 화장실 2, 주방, 거실

분양문의 (062) 610-9232